

사회복지사무소 개소 축하 메시지

사회복지사무소가 문을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

사회복지사무소는 일 잘하는 정부, 대화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하나입니다.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고, 어려운 이웃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

지금 경제가 매우 안 좋습니다. 서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더욱 어렵습니다. 저도 어려운 분들의 고단한 삶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.

참여정부는 사회안전망을 보다 내실 있게 보강해서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. 최소한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고,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일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.

여러분이 하는 사회복지 업무는 무엇보다 소중한 일입니다. 어려운 분들은 여러분의 말 한 마디에 큰 위로를 받고, 손길 하나에 새 힘을 얻습니다. 여러분이 잘해 주셔야 정부도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. 국민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'항상 든든하고 의지할 만하다'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저와 정부도 여러분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

이번에 시범운영되는 사회복지사무소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가야 하겠습니다.

다시 한번 사회복지사무소의 개소를 축하드리며,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.